

## ■ 2024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개인) 공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개인) 공모 지원심의회의
- 회의일시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10:30~13: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효영, 문옥배, 박민경, 윤서비, 황승경

본 사업은 개인의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 기여를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비평 문화를 활성화시켜 동시대 공연예술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개인) 사업은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3편 이상의 실적이 있고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에 대한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단순 협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 단순 게재가 아닌 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간 비평 활동계획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필수 자료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실행역량의 전문성(30%), 사업의 확산 가능성(30%)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심의기준별로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별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였습니다. 각 신청 사업들 간 심의위원별 채점 등급은 각각 A 95점, B 85점, C 75점, D 65점, E 50점으로 환산 적용하였습니다. 지원심의회의 이후 총점으로 순위에 의한 지원 대상선정을 하였고 최종 평점결과가 75점 이하는 과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동점인 경우는 지역소재, 전년도 미지원 여부, 활동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비평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을 통해 개인의 비평 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지속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전문매체의 경우 제시된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확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점 고려사항도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제척사유에 따라서 심의 회피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숙지하였습니다.

2024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신청건수는 개인 58건이며, 6건은 행정결격(지원신청서 등 미첨부 및 타사업 신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52건을 심의해 총 10건의 개인 비평 활동 지원사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개인은 1인당 3백만 원을 포상금 형태로 정액 지원받습니다. 장르별 10개 팀으로는 연극·뮤지컬분야 2건, 음악분야 2건, 무용분야 2건, 전통분야 2건, 다원예술분야 2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장르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창작과 공연형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동시대 공연예술사조에서 흐름을 짚어내고, 다양한 표현양식에 대한 정체성 연구와 비평적 관점을 뚜렷하게 제시한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비평은 중요한 공연예술 영역입니다. 예술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비평분야가 형성되어야 공연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기록의 비평이나 미학적인 표상 비평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참신한 무대'와 소통하려는 비평에 무게를 두고 전통적 비평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예술 담론에 도전하려는 실험적 비평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공연예술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파생적인 활동 가능여부도 눈 여겨 보았습니다. 균등보다는 균형을 위해 단순히 지역공연의 집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연의 확장성을 위한 비평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또한 2024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사업지원을 받은 개인이 문예위 지원을 받는 비평지에 기고해 실적으로 인정받는 이중지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완전히 벗어난 2024년은 장르별 활발한 창작활동이 예상됩니다. 비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비평이 공연예술 담론의 수원지로서 건강한 공연예술비평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공연예술비평 장(場)이 되어 미래 담론을 들여다보는 창(窓)의 전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개인) 공모 지원심의 심의위원 일동